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2018. 11.

국민행동요령 원칙

국민행동요령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상시부터 가족, 이웃과 함께 미리 알아 두어야 할 행동지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이웃과 힘을 합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 1.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알아 두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국민행동요령을 익혀둡니다.
- 1. 재난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재난정보를 확인하고 가까운 긴급 대피장소,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 방법 및 만남의 장소 등을 미리 정해 둡니다.
- 1. 반상회 등 지역사회 모임을 통하여 주위의 재난약자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에 대해 논의합니다.
- 1. 환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재난에 대비하여 가까운 이웃이나 도와주는 사람과 연락방법, 도움 받을 방법, 대피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서로 알아둡니다.
- 1. 주위에 환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 1. 대피 완료 후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재난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1. 재난 발생 후에는 가족과 이웃의 피해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복구에 동참합니다.



CONTENTS

1. 태풍	1
2. 호우	9
3. 대설	17
4. 폭염	25
5. 한파	33
6. 강풍	41
7. 가뭄	47
8. 황사	55
9. 낙뢰	63
10. 해수면 상승	73

1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

태풍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태풍 예보시

1.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할지를 준비합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로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하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태풍 특보 중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특히,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피할 때는 침수되거나 파손된 도로, 교량 주변은 피하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태풍 이후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도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태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2 호 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호우

평상시 행동요령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사전준비

-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합니다.
 -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2.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 지역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 대피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 4.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한 곳에 준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둡니다.
- 5.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를 함께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호우특보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호우특보 예보시

1.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의 안전디딤돌 앱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미리 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재난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우특보 중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호우 후 행동요령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이웃 등 주변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호우 이후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無理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도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3 대설

이렇게 행동하세요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인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음과 같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사전준비

1. 내 지역의 정보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 재해위험요소는 과거 피해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합니다.

2.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여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합니다.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 대피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숙지하고, 어린이 등 재해약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이웃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4. 비상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자세히 알아둡니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사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연료,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이 있는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해 둡니다.



6. 재난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정비합니다.

대설
예보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대설이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대설이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취하도록 합니다.

대설 예보 시

1. 대설지역 및 지속시간 등을 파악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할 지를 준비합니다.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2. 산간 고립지역·붕괴 위험시설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눈사태 위험지역, 노후주택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주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니다.
- 눈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니다.



3. 주택이나 차량 등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어떻게 할지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 합니다.

-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수산 중·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4. 비상용품 준비 등 재난 발생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 정보 수신을 위해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5.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 대설이 예보된 날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몸을 따뜻히 유지하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습니다.
- 눈길 및 빙판길 운전을 피하고,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비상구호품 및 장비를 챙깁니다.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대설 특보 중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합니다.
- 노후가옥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쌓인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2.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체인, 염화칼슘, 삽 등)를 휴대합니다.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월동장비,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 확인토록 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
-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기합니다.



3. 농·어촌, 공장 등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직원이 함께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비닐을 걷어내고,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설 후 행동요령

큰눈이 멈춘 후에는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대설 이후

1.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여 이동하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대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대설 후, 한파가 이어져 빙판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미끄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 가스,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대설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점검 후에 출입하도록 합니다.



대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교 육 부 044-203-6263, <http://www.mohw.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ofra.go.kr>
- 국토교통부 044-201-3918, <http://www.molit.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경 찰 청 02-3150-2856, <http://www.police.go.kr>
- 소 방 청 044-205-7621, <http://www.nfa.go.kr>
- 기 상 청 02-2181-0501, <http://www.kma.go.kr>
- 해 경 청 044-205-2345, <http://www.kcg.go.kr>

4 폭염

이렇게 행동하세요



평상시 행동요령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준비

1.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4.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C~28°C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5. 취약계층 안전 확인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발생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3.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5.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폭염
관련 정보**

폭염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폭염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더위질병 상식

종류	증상	대처요령
땀띠 (한진)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겹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겹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폭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 피난시설, 무더위쉼터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5 한파

이렇게 행동하세요



평상시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준비

1. 겨울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저체온증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추위로 인한 질병(저체온증, 동상, 참호족·침수족, 동창 등)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한파예보에 맞추어 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에 주의합니다.
-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등은 미리 보온 조치를 합니다.
- 외출할 때를 대비하여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4. 한파 안전 상식

-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을 유지하고 따뜻한 옷과 담요, 음료 등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 선천성 질환이나 만성질환(내분비계, 심뇌혈관, 신경계, 감염병, 피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동절기 기간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한파는 호흡기나 순환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 한파가 지속될 때 실내 기온이 4°C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 높아지고, 저온에서는 혈액 유속이 더욱 느려지며, 혈청 피브리노겐 수준이 높아져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게 만듭니다.

5. 취약계층 안전 확인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한파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한파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한파 발생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 등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 》

- ①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 ②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 ③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 ④ 가능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⑤ 웅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⑥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합니다.
- ⑦ 넘어질 때는 무릎으로 주저 앉으면서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⑧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입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2.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어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동해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 축사 등은 쌓인눈에 의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보수·보강하고, 셋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 합니다.
-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한파 관련 정보

한파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어 한파특보나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파 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한파	<p>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아침 최저기온이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p> <p>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p>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아침 최저기온이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p> <p>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한파질병 상식

종류	증상	대처요령
저체온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 장애 발생 ▶ 점점 의식이 흐려짐 ▶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 팔, 다리의 심한 떨림증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바로 119로 신고합니다. 2.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줍니다. 3. 거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 이런 재료가 없는 경우 사람을 꺼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4.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합니다.
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도 :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 ▶ 2도 :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 3도 :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 소실 ▶ 4도 : 근육 및 뼈까지 괴사 	<p>※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38~42°C)에 담급니다. * 38~42°C : 동상을 입지 않는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3. 얼굴 귀 :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4. 손, 발 :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웁니다. *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 붙지 않게 함 5.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합니다. * 부종 및 통증을 줄여줍니다. 6. 다리, 발 동상환자는 들 것으로 운반합니다. *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눕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됩니다.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에 의한 손상 *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 골절, 타박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홀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합니다. 2. 환자가 편안해 하는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 필요시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한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 피난시설, 무더위 쉼터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6 강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평상시 강풍대비

강풍으로 간판, 조립식 지붕,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신호기 등의 옥외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준비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 노후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 또는 보강합니다.
- 유리창 파손 시 유리 파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에 유리창 파손 대비 안전필름을 붙입니다.
-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고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간판이나 교회 철탑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풍 발생 전 반드시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들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 바람에 의해 농약과 같은 “위험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 강풍 발생 전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집 근처의 죽은 나무나 가지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하고, 주위의 물건이 강풍에 날아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을 미리 정리합니다.
- 강풍에 노출되는 전선들은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 합니다.

강풍
발생 시
행동요령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

강풍 발생 시

-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합니다.
-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습니다.
-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습니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날릴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 관련 정보

강풍에 대한 특보 기준을 미리 알아두고 강풍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풍이란

-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강풍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50.4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61.2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90km/h)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93.6km/h)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86.4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108km/h)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기상청 기상 및 기상특보 정보

-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7 가뭄

이렇게 행동하세요



가뭄

가뭄 시 생활 행동요령

평상시 생활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작지만 소중한 물 절약 운동에 참여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1. 주방이나 세탁할 때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 식기류 세척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합니다.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2. 화장실이나 욕실에서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 세수 할 때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 목욕 할 때는 물을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니다.
- 머리를 감는 동안 물은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니다.
- 양치질을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합니다.
- 면도 할 때는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습니다.
-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3. 실외에서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 잔디 물주기는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니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니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덮개를 하여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습니다.
- 건물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빗자루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니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한 후 세차합니다.
-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관정 개발, 논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깔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농촌에서는

1. 논농사 시에는 물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물 절약에 동참합니다.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수시 점검합니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니다.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합니다.
- 못자리 급수 조절 등을 통한 모(벼) 노화 방지를 합니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해 물 절약을 합니다.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니다.
- 모 활착 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니다.
- 물이 가장 필요한 활착기(5~6월), 유수형성기(6~7월), 수잉기(7~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니다.
- 관정 등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니다.
-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니다.



배수로, 양수기, 송수호스 등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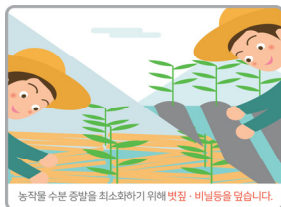
물 손실 방지를 위해 논두렁 등을 정비합니다.



발작물의 파종이 지연된 지역은 대체 작물을 재배합니다.

2. 발작물 재배 시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참합니다.

- 발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합니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발작물 토양 수분이 알맞을 때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 관리를 합니다.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볏짚·비닐을 깔아 토양 수분 증발을 최소화합니다.
- 발작물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수 있는 대체작물을 재배합니다.



농작물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볏짚·비닐등을 덮습니다.

가뭄과 관련된 정보

가뭄에 대한 기관별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 생활 가뭄 등에 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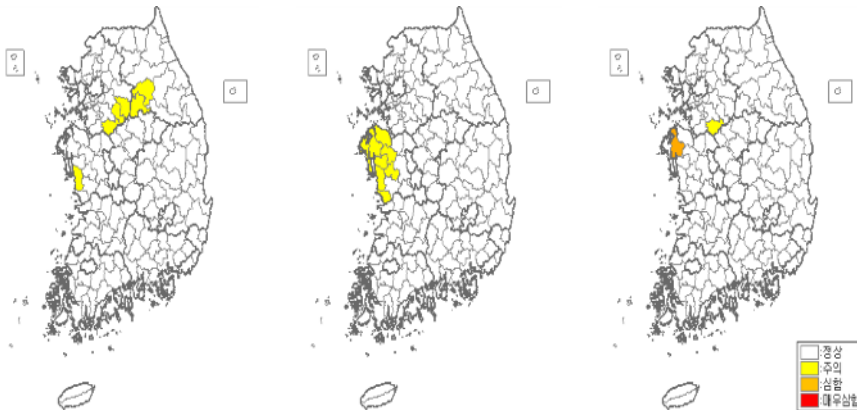
가뭄 예·경보

가뭄 관련 정보를 기관별* 목적과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로 생산·가공하고, 부처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선제적 대응 및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가뭄에 대한 사전 예측·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제를 '16. 3월 시범 운영하여 '17.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총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적 가뭄), 환경부(수문학적 가뭄), 기상청 (기상학적 가뭄)

가뭄 예·경보 발표방법

- (발표주체) 행정안전부(관계부처* 공동명의) *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발표시기) 매월 10일 발표, 필요시(수시)
- (발표지역) 특별·광역시·자치시도 및 시·군별로 실시
- (발표내용) 현재,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으로 구분
- (표기방법) 기상, 생활·공업, 농업 용수별로 구분, 지도에 색깔로 표시하고 지역 명시



기상 가뭄지도(기상청)

생활·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농업용수 가뭄지도(농식품부)



가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가뭄 예·경보 안내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종합가뭄 예·경보 <http://www.safekorea.go.kr>
- 기상청 수문기상정보시스템 <http://hydro.kma.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857, <http://www.mafra.go.kr>
- 국토교통부 044)201-3611, <http://www.molit.go.kr>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587, <http://www.motie.go.kr>

8 황사

이렇게 행동하세요



황사

황사 발생 전 행동요령

황사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족, 교직원, 지역 주민과 대처합니다.

사전준비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니다.
- 외출 시에는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니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습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해 둡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니다.

3. 축사·시설원에 장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벼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니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습니다.

황사
발생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황사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부를 살피습니다.

황사 발생 시

1. 일반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가족과 직원이 함께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니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고 조리도구, 기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합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합니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합니다.

3. 축사·시설원에 장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습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습니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합니다.

황사
발생 후
행동요령

황사가 지나간 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먼지를 제거합니다. 학교 등에서는 민감자(어린이·노인 등)를 귀가 조치하고 축사·시설원에 시설은 소독을 실시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후

1. 일반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가족과 직원이 함께

- 실내공기를 환기해 줍니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킵니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3. 축사·시설원에 장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 줍니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황사 관련 정보

황사에 대한 특보 기준과 상식을 미리 알아두어 우리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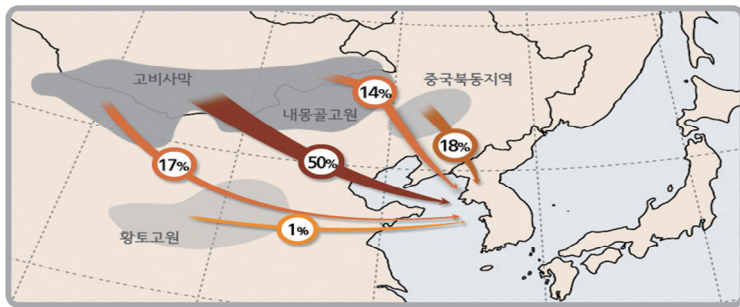
황사 예보

종류	정 보	경 보
황사	황사발생 가능성 및 황사에 대한 동태를 1일 4회 기상통보문을 통해 발표하며 황사 이동 경로, 유입 시점 및 황사 강도를 예측을 홈페이지 및 긴급방송으로 배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상식

1. 황사 발생지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고비사막·내몽골고원, 중국 북동 사막지역, 황토고원 등입니다. 이 중 서로 인접하는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여 직접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50%이며,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기는 하지만 중국 북동 사막지역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14%, 황토고원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17%를 차지합니다. 즉,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는 경우가 전체의 81%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북동 사막지대 및 황토고원에서 직접 발원하여 유입되는 경우가 각각 18%, 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2. 황사의 성분 및 영향

- 황사는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이온성분은 칼륨,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양성분입니다. 최근 미세입자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오염물질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황사의 경우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황사가 가라앉은 지역의 경우,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 황사의 영향 >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활엽수의 숨쉬는 구멍을 막아 생육에 장애를 일으킴 • 눈 질환 유발 및 호흡기관으로 깊숙이 침투함 • 빨래, 음식물 등에 침강·부착 •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시 시정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 반도체 등 정밀기계 손상 가능성 • 태양 빛을 차단, 산란시킴(시정 악화) • 지구대기의 열 수지에 영향을 미침(복사열 흡수로 냉각효과) • 구름 생성을 위한 응결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알칼리성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산성비 중화작용 • 산과 호수에 알칼리성분을 공급하여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방지 • 서해 등에 풍부한 미네랄 공급 및 정화 작용 •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 제공(생물학적 생산력 증대) •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한 무기염 흡수 강화

< 황사와 미세먼지의 비교 >

구분	황사	미세먼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10μm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경이 10μm이하인 먼지로서 10μm 이하인 PM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토양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등의 생육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의 부정적 영향과 토양의 산성화 예방이라는 긍정적 영향 병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발률,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
예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경보 실시 ※ 열음, 짙음,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강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10에 대한 좋음, 보통 등 5가지 예보 단계 적용중(PM2.5 오존 등에 대해서는 준비중) • 미세먼지특보(주의보, 경보) 등 실시
소관부처	기상청	환경부



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대처사항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기상청 : <http://www.kma.go.kr>
- 국립수목과학검역원 : www.nvrqs.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한국환경공단 : <http://www.airkorea.or.kr>
- 교육부 044)203-6263, <http://www.moe.go.kr>
 - 1) 서울교육청 02)399-9580, <http://sen.go.kr>
 - 2) 부산교육청 051)860-0399, <http://www.pen.go.kr>
 - 3) 대구교육청 053)231-0525, <http://www.dge.go.kr>
 - 4) 인천교육청 032)420-8194, <http://www.ice.go.kr>
 - 5) 광주교육청 062)380-4392, <http://www.gen.go.kr>
 - 6) 대전교육청 042)480-7719, <http://www.dje.go.kr>
 - 7) 울산교육청 052)210-5594, <http://www.use.go.kr>
 - 8) 세종교육청 044)320-2444, <http://www.sje.go.kr>
 - 9) 경기교육청 031)820-0727, <http://www.goe.go.kr>
 - 10) 강원교육청 033)258-5511, <http://www.gwe.go.kr>
 - 11) 충북교육청 043)290-2276, <http://www.cbe.go.kr>
 - 12) 충남교육청 041)640-7912, <http://www.cne.go.kr>
 - 13) 전북교육청 063)239-3377, <http://www.jbe.go.kr>
 - 14) 전남교육청 061)260-0655, <http://www.jne.go.kr>
 - 15) 경북교육청 053)805-3156, <http://www.gbe.go.kr>
 - 16) 경남교육청 055)268-1394, <http://www.gne.go.kr>
 - 17) 제주교육청 064)710-0471, <http://www.airkorea.or.kr>

9 낙뢰

이렇게 행동하세요



낙뢰

낙뢰 예상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태풍·호우가 예보된 때에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낙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낙뢰 사전준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 발표 시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에 대비합니다.

- 낙뢰 예보 시에는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무릅니다.
-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할 할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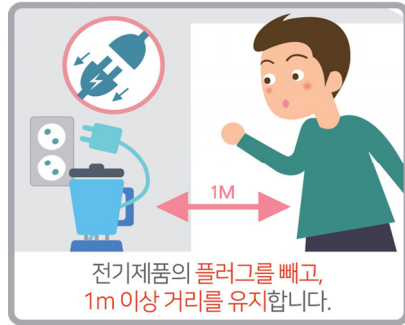
낙뢰가
발생할 때
행동요령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자제합니다. 또한, 30~30낙뢰 1)안전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낙뢰 중

1.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피해에 대비합니다.

- 스마트폰, 라디오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합니다.
-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족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2. 산에서는 (대피장소 : 동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주변인들과 함께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납니다.

-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높은 곳은 위험하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 발생 시 신속히 낮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립니다.
- 대피 때에는 지면에서 10cm 정도 이상 높은 절연체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등산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로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 번개를 본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센 후,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작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야외에서는(대피장소 : 건물,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등) 동료들과 함께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납니다.

-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합니다.
-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는 골프채, 삽, 괭이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한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합니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읍니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합니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서 그대로 기다립니다.



응급처치 행동요령

낙뢰에 의한 감전 및 화재 사고 시 가능한 한 빠른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합니다.

낙뢰에 맞은 때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또한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응급조치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 피해자가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면,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다른 상처를 가능한 빨리 찾습니다. 몸에서 낙뢰가 들어가고 빠져 나온 부위의 화상을 체크하며, 신경계 피해, 골절, 청각과 시각의 손상을 체크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 등산 등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 합니다.
-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낙뢰 관련 정보

낙뢰에 대한 기상정보를 알아두고 태풍·호우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낙뢰 관측과 예보

- 기상청은 전국 21개 지점에 낙뢰감지센서(IMPACT) 7조 및 구름방전감지센서(LDAR II) 17조를 설치하여 한반도와 주변 해상에서 발생하는 낙뢰현상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센서의 모양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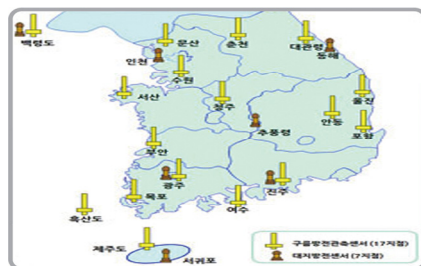


[그림 1] 대지방전 센서(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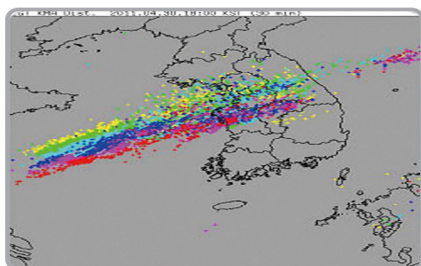


[그림 2] 구름방전센서(LDAR)

- 낙뢰는 특보가 없는 기상정보로 낙뢰의 발생 시각, 위치, 강도, 극성 등 낙뢰 관측 자료를 영상으로 처리하여 기상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3] 낙뢰관측망



[그림 4] 낙뢰영상

-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낙뢰피해예방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낙뢰사고 집중기간에 안전사고 예보와 낙뢰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낙뢰는 어떻게 감전되나?

- 통상적으로 낙뢰가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유형도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낙뢰를 맞은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직격뢰 (direct strike)

- 뇌격전류가 직접 사람을 통해 대지로 흐르는 것으로, 심장마비, 호흡 정지, 신체훼손 등으로 대부분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② 접촉뇌격 (contact str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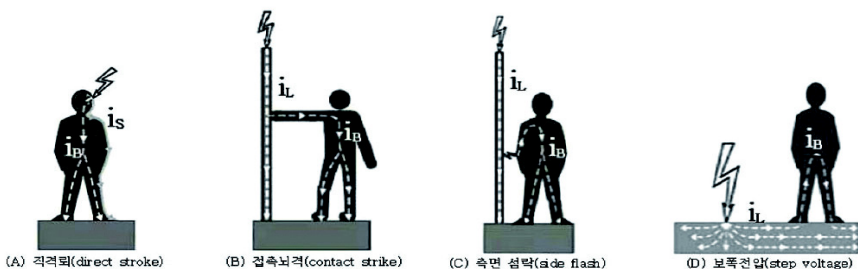
- 사람이 지닌 물체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전류는 물체로부터 사람을 거쳐 대지로 흐릅니다. (골프채, 등산 스틱, 우산 등)

③ 측면 섬락 (side flash)

- 낙뢰가 나무와 같은 물체에 떨어졌을 때 물체와 인근 사람 사이의 전위차가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이 뇌격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경로가 되어 전류가 심장 또는 머리를 통해 흐를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④ 보폭 전압 (step voltage)

- 낙뢰로 뇌격전류가 대지에 흐를 때 근처에 있는 사람의 양발 사이에 걸리는 전압으로 일정 값을 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i_B : 신체전류(body current), i_L : 낙뢰전류(lightning current), i_S : 신체표면 섬락전류(surface flashover current)

낙뢰의 충격 유형



낙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기상청 기상 및 기상특보 정보

-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10 해수면 상승

이렇게 행동하세요



해수면 상승

평상시 행동요령

조수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는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백중사리(음력 7월 15일 전후), 대조기(매월 음력 2~4일)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위험지역, 대피요령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숙지합니다.

대조기

그믐·보름으로부터 2~4일간을 대조기라고 하며, 조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흐르는 기간입니다. 바닷물은 달·태양의 인력 외에도 지형, 해저 마찰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믐·보름 1~3일 후에 대조기가 발생합니다.

사전준비

-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조수(潮水)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백중사리, 대조기 시기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2.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조수(潮水)재난이 발생 시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 3. 가족과 사전에 비상에 대비해서 각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 대피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 4. 비상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숙지에 둡니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과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미리 높은 곳에 물건을 옮겨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해 둡니다.

6.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여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침수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침수나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수면 상승시

1. 해수면 상승이 예보된 때에는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주변에 알려 줍니다.

- 대조기 등 해수면 상승이 예보된 때에는 해안가 지역에서 갯벌 체험활동, 지역 축제, 낚시, 관광 등을 취소하고 출입을 자제합니다.
-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차량·주민은 높은 곳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2.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높은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조수로 인한 침수, 범람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저지대 도로 등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즉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 조수로 인한 침수, 범람의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방송이나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고층건물, 고지대 등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 시에는 질서 있게 행동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를 우선 배려하여 대피합니다.
- 부상자가 발생하면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119 등에 연락을 취해 조치합니다.

3. 침수나 범람 위험지역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 해수면 상승과 강풍, 풍랑 등이 발생하면, 너울성 파도, 해일 등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안가 주변의 도로, 방파제, 해수욕장, 갯바위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갯바위, 갯벌 등에서 고립될 경우에는 즉시 119,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4. 대피 시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 함께 주의합니다.

- 침수나 범람이 발생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주택의 전기시설 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물이 잠겨 있는 도로에는 차량 운행이나 보행 이동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에서 이동하거나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둡니다.

5. 주변의 안전 여부를 다 함께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신고하고 주변에 알려 줍니다.

- 해안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안지역으로 이동한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주변에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112, 119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044)205-2142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기상청 02)2181-0501, <http://www.kma.go.kr>
- 국립해양조사원 051)400-4400, <http://www.khoa.go.kr>

-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홍보하는 등 국민행동요령 확산에 적극 노력합니다.
- ◆ 유치원, 학교 등 각 교육기관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합니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발 행 일 : 2018. 11.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Tel. 044) 205-5238
Fax. 044) 205-8966

< 비매품 >